

中醫診斷學의 史的 考察(1)

-四診을 중심으로-

崔桓壽 · 金容辰 · 尹暢烈*

I. 緒論

中醫學 개론서의 비교연구를 하는중에 孫廣仁과 또 印會河·張伯訥이 主編한 『中醫基礎理論』에서 다른 모든 중의학부분(기초이론, 생리, 병리, 침구, 변증 등) 현대적 연구를 첨부하고 있으나 유독 진단에 대한 현대적 연구만이 없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의학의 진단방법인 四診과 辨證이 한의학적 이론으로는 실증적이지만 객관성과 定量性을 요구하는 현대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의사의 五感과 환자의 주관적 증상 설명에 의지하여(추상적 다양성)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실증적인 통일로서 인식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대과학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야만이 실증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서 진단의 현대적 연구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지금은 한국에서는 의료제도의 문제로 점차 한의학의 진단방법을 현대과학에 접목해야만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접목을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역사의 고찰은 근원의 회귀로 한 과거의 반성과 이를 통한 미래의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학의 진단학 발달에 관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하여 우선 중의학의 진단학의 역사를 四診(舌診 포함)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아래에 진단학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洪元植의 『中國醫學史』¹⁾를 따라서 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 戰國時代(B.C.475~B.C.221)
- 2) 秦漢時代(秦:B.C.221~B.C.207, 漢:B.C.206~A.D.220, 三國시대를 포함)
- 3) 兩晉 및 隋唐五代(A.D.265~959)
- 4) 宋代(北宋: 960~1127, 南宋: 1127~1279)
- 5) 金元時代(金: 1115~1234, 元: 1271~1368)
- 6) 明代(1368~1644)
- 7) 清代(1644~1911)

1. 戰國時代의 진단학

『墨子』 「兼愛上篇」에 “聖인이 天下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일로 삼는 것은 의사가 사람의 질병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질병이 발생한 곳을 알아야 공격하는 것이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공격할 수 없는 것과 같다(聖人以治天下爲事事野, 如醫之攻人之疾者然 必知疾之所自起 焉能攻之 不知疾之所自起 則弗能攻)”라고하여 診斷의 目的과 當爲性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疾病을 診斷하는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周禮』 「天官」에 “五氣, 五聲, 五色으로서 死生을 관찰한다. 두 번째는 九竅의 變化를 살피고 세 번째는 九藏의 움직임을 살핀다(以五氣 五聲 五色 旣其死生. 兩之以九竅之變 參之以九藏之動)”라고하여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마땅히 환자의 五藏에서 나오는 氣味, 언어가 나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洪元植, 『中國醫學史』, 1次 印刷,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II. 本論

타낸 소리, 용모에 나타난 안색에 의거해서 환자의 예후를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九竅의 변화와 臟腑에 반영된 것을 거듭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후세의 四診의 方法에 대해 이미 이때에 그 기본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²⁾.

『史記』 「扁鵲傳」에 扁鵲이 趙簡子の 病을 診脈을 통해서 죽지 않을 病이라고 한 일화가 나오니 B.C.5-4세기경의 인물인 扁鵲이 脈에 정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당시의 脈診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알 수 없다³⁾. 史料중에 편작의 醫療흔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望診으로서 有名한 것으로는 '入虢之診', '望齊侯之色'이 있다⁴⁾. 결국 扁鵲은 "脈을 살피고 色을 관찰하고 音聲을 듣고 形態를 살펴야 病이 있는 곳을 말할 수 있다(切脈 望色 聽聲 寫形 言病之所在)"라고하여 脈診과 望診에 대해 상당히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馬王堆 漢墓 醫書帛書⁵⁾중에는 곧 진단학의 전문적인 서적이 있었으니 『陰陽十一脈灸經』의 甲本の 후면에 있는 抄錄에 『脈法』과 『陰陽脈死候』 두가지의 책이 있었다. 그 중에 『脈法』에서 단도직입적으로 "以脈法明教下"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당시에 이미 비교적 계통이 있는 脈法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⁶⁾.

앞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때부터 경험에 의지하던 단계를 벗어나 일정한 이론적인 근거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秦漢시대의 진단학

2.1 脈診

最古의 經典으로 지금까지 숭상되고 있는 『黃帝內經』⁷⁾의 脈診에 대해서는 『素問』과 『靈樞』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靈

樞』에서는 診脈의 部位·方法과 임상에의 運用을 서술하였는데 脈診의 方法으로는 尺膚診斷, 人迎·寸口를 診脈에 對比한 方法, '是動則病'이라는 遍診法 등을 기술하였으며, 呼吸과 맥박수와의 관계, 色診과 脈診을 결합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素問』에서는 脈診하는 부위를 넓혀서 三部診斷法으로 傳神의 疾病을 診脈하는 方法(三部九候脈診, 寸口脈診, 寸尺部位診斷 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脈을 살피는데 먼저 陰陽을 변별하여야 한다는 脈診의 要綱을 확립하였고, 胃氣의 有無를 변별해서 生死를 구분하고(脈診에서의 胃氣의 중요성 강조), 色脈을 결합해야 완전함, 4계절의 變化와 脈象과의 관련성, 診脈할 때의 注意事項 등을 論하였다⁸⁾.

3) 앞의 책, 112.에서 재인용.

4)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初版 1刷, 新華,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1: 3.

5) 馬王堆 醫書들의 완성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診斷學에 필요한 『陰陽十一脈灸經』의 완성시기를 戰國시대라고 보고 설명했다. 이는 周世榮 編著의 『馬王堆養生氣功』(1次印刷, 湖北省: 湖北科學奇術出版社, 1990: 336-337.)을 참조하였다.

6) 脈診은 周一謀 等著의 『馬王堆醫學文化』(1次印刷, 上海市: 文匯出版社, 1994: 23-24.)에서는 '經脈의 揅診'으로부터 기원했다고 보고 있다.

7) 『黃帝內經』의 저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甄志亞는(위의 책, 80-81.) 초기와 후기작품으로 나누어서, 초기작품은 戰國시대이상이지 않고 후기작품은 西漢시대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鄧鐵濤는(『中醫診斷學』, 1版 6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3.)에서 B.C. 3세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洪元植은(위의 책, 46.) 戰國時代 초기에서 後漢에 이르는 시기에 많은 의사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尹暢烈은 B.C.1세기에서 A.D.1세기에 완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저작된 시대보다 앞서 말한 馬王堆 醫書보다 후대의 것이라는 점을 맞추어 秦漢시대라고 구분하였다.

8) 黃世林·孫明異 著, 『中醫脈象研究』, 1版 2

2)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中國醫學史』, 1次印刷,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1: 44.에서 재인용.

『難經』은 이러한 기초에서 '經脈診候'와 '獨取寸口'라는 切脈의 방법을 창립하였다. '獨取寸口'는 『內經』의 三部九候를 三部는 氣口部位의 寸關尺으로, 九候는 三部에 각각 浮中沈으로 나누는 것이라 해석한 것이다. 이는 寸口脈診法을 全身疾病을 진단하는 원리로서 『內經』의 全身診脈法을 고쳐서 후세에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寸口診脈法의 기초가 되었다⁹⁾. 이외에 尺脈을 살피는 것이 元氣의 有無를 결정하는 것이고, 脈位를 陰陽으로 나누어서 五臟脈을 변별하였다¹⁰⁾.

淳于意는 그의 診籍을 보면 20종의 脈象을 기재하고 있어 脈學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

A.D. 3세기에는 東漢의 위대한 의사인 張仲景은 『傷寒雜病論』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진단상에 있어서 脈과 證을 동시에 중시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內經』의 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內經』의 부족한 많은 질병에 대해서 病脈證을 파악하여 治療와 결합하였다¹²⁾. 이를 評脈辨證¹³⁾이라고 한다. 또한 脈의 陰陽을 나누어 임상에 응용하였고, 脈으로서 病을 변별하여 治療와 方藥의 原則을 확정하였고, 脈學으로서 病機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脈診方法(전신을 살필 때에는 寸關尺三部脈法, 胃腸계통의 질병일 때에는 趺陽脈診法, 脾胃가 虛弱해졌을 때에는 關脈을 더욱 유심히 관찰, 복잡한 病일 때에는 여러종류의 방법을 결합하는 등)을 사용하였다¹⁴⁾.

華陀는 證을 논하고 脈을 논하고 臟腑寒熱 虛實生死順逆의 法을 논하여 대단히 유명하였으니 『中藏經』에는 구체적으로 華陀가 病을 진료한 학술경험이 기록되어 있다¹⁵⁾.

2.2. 望診

『黃帝內經』에서는 望診의 意義方法內容重要性 등의 理論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系統的

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望診學說의 기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望診의 內容에 대해 顏面部와 眼睛의 五色變化와 浮沈聚散澤夭明暗 등을 살피고 顏面部를 七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어느 부위는 어느 臟器의 病變이 나타난다고 정해 놓아 色調의 天澤으로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곧 망진에서 神色形態의 관찰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면의 관찰이외에 血脈의 色을 진단하여 病變의 성질을 정하는 방법이나 局部와 分泌物에 대한 望診도 설명하였다¹⁶⁾.

B.C. 2세기에는 西漢의 名醫 淳于意在 乘陽慶에게서 黃帝扁鵲의 脈書를 얻게 되어 五色으로 病을 診斷하여 사람의 生死를 알고 疑問點을 해결하여 治療를 定하였다. 『史記』「倉公列傳」에 보면 濟王의 왕비의 동생인 宋

9)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92-93. 요약

10) 黃世林孫明異 著. 위의 책, 10-12.를 요약함.

11) 甄志亞 主編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127

12) 洪元植. 위의 책, 101; 鄧鐵濤, 위의 책, 13.에서 발췌하여 요약함.

13) 嚴世囊 主編. 『中醫學術史』. 1次印刷, 常熟市: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91-92. 辨證評脈은 仲景의 중요한 學術思想이다. 모든 398條의 條文중에 135條에 脈과 證이 같이 거론되었고, 거론한 脈은 19종이며 兼하여 나타난 脈象은 59종이었다. 傷寒脈證에는 異證脈同者, 證同脈異者가 있으므로 評脈辨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立法論治의 근거로 삼았다. 예를 들어 浮脈에는 表症虛症熱症이 되고, 또한 緊緩數弱細代動數滑遲虛芤澀虛澀한 脈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證治가 다르게 된다. 결국 傷寒辨證評脈의 방법은 仲景이 『內經』의 色脈診의 原理를 흡수하고 많은 臨床經驗을 거치면서 분석해서 總結된 것이다.

14) 黃世林孫明異 著. 위의 책, 13-14.를 요약함.

15) 鄧鐵濤. 위의 책, 13.

16) 앞의 책, 13.;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3.을 요약함.

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9.를 요약함.

建이 病이 들었을 때 淳于意는 그의 太陽顏色에서 땀이 나는 것을 보고 發病한 時期를 알게 된 것이 있고; 濟나라 北王이 그를 초청하여 시녀 豎를 진단하였을 때 “毛髮黑而色潤澤 脈不衰”라 하고 關內的 病이라고 定한 것들이 있다. 이는 倉公의 望診이 『內經』理論과는 서로 부합되지 않으나 그의 望診이론은 발전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⁷⁾.

『難經』에서 脈診을 주로 서술하였으나 또한 「15難」에서는 脈診과 望診을 서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脈象에 面色과 尺部皮膚과 서로 相關性이 있음을 설명하였다¹⁸⁾.

『傷寒雜病論』중에는 外感病, 內傷病을 막론하고 모두 비교적 체계적으로 望診을 사용한 條文들이 있다. 예를 들면 太陽病中の “面色反有熱色者”(23조), “面色緣緣正赤者 陽氣怫鬱在表”(48조), “未持脈時 病人手叉自冒心”(75조) 등이 있으니, 表證의 新·色·形·態 모두 다른 정도의 논술이 있다. 雜病에 대해서는 『金匱要略』에서 특히 대부분을 論술하였다. 「臟腑經絡先後病」에서 곧 “病人有氣色見于面部”, “鼻頭色青 腹中痛 故冷者死”라고 말하였다¹⁹⁾.

『黃帝內經』의 舌診의 특징은 舌質을 논한 곳이 22개요, 舌苔를 논한 것이 2곳이 있는데, 이를 본다면 舌質에 대한 분석을 舌苔보다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로는 『內經』의 舌質의 변화를 이미 인식한 상태에서 舌苔變化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었다²⁰⁾.

仲景의 望舌理論은 특히 후세에 舌診理論의 틀과 기초가 되었으니 舌本, 舌苔, 舌覺 등의 방면으로 病機를 분석하여 治療原則을 확립하였으니 舌을 따라 治療를 論하였다²¹⁾.

2.3. 기타

『黃帝內經』에서 問診에 대해서는 환자의 發病前의 생각이나 정서를 중시하였고, 다음으로는 飲食起居의 變化, 또 다음으로는 既

往의 病歷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것은 病因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외에도 病의 始初와 현재의 증상을 반드시 물어보았는데 이는 疾病의 變遷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²²⁾. 問診에 대해서도 다만 “성음을 듣고서 疾病의 고통을 안다(聽聲音 而疾所苦)”라하여 聲音을 듣는 것과 氣味를 살피는 것 즉 臊·焦·香·腥·腐를 각각 筋·脈·肉·皮·毛·骨의 病變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여 問診에 응용하도록 하였다²³⁾.

『難經』에서도 「61難」에 “들어서 안다는 것은 그 五音을 들어서 疾病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물어서 아는 것은 그 병이 발생된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있다(聞而知之者 聞其五音 以別其病, 問而知之者 問其所欲五味 以知其病所起所在也)”라고 하였고 또한 問診과 問診을 잘하는 것을 聖工이라고 하고 切診을 잘하는 것을 巧라고하여 問診과 問診을 切診보다 한단계 위의 기술로 설명하였다²⁴⁾.

淳于意의 진단과 치료의 예들은 그의 ‘診籍’(진료부)이라는데에서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診籍’은 자세하게 환자의 성명·주소·病狀·脈案·論證·예후판단과 方藥과 診療날짜를 기록하였으니, 진단학에서 가장 원시적인 완벽한 醫案記錄을 제공하는 것이다²⁵⁾.

『金匱要略』 「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에서는 “吸息이 미약하면서 빠른 것은 病이 中焦에 있으면서 實證인 것이고 …… 上焦에 病이 있는 것은 吸息이 급하고 下焦에 있는 것은 吸息이 느린데 이는 모두 치료하기 어렵

18) 唐湘清, 『難經今釋』, 2次印刷, 臺北: 正中書局, 1985: 83.을 참조함.

19)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7.

20) 朱廣仁, 『內經·舌診芻議』, 『新中醫』 1990: 제1기: 47.

21)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7.

22) 鄧鐵濤 主編, 위의 책, 13.

23) 啓業書局, 『問診』, 臺北: 啓業書局有限公司, 1986: 3.

24) 唐湘清 編著, 위의 책, 229.에서 재인용하고 참조함.

25) 鄧鐵濤, 위의 책, 13.

17) 앞의 책, 6.

다(吸而微數 其病在中焦 實也 …… 在上焦者 其吸促 在下焦者 其吸遠 此皆難治)라고 하였는데²⁶⁾, 이는 聞診의 내용중 呼吸으로 病이 있는 곳과 豫後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內經』의 診斷방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질병을 진단하는데 반드시 病을 일으키는 內外因素를 결합해서 전면적으로 종합하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內經』과 『難經』은 기본적으로 진단의 이론과 방법을 개괄하였으므로 “의사의 진단학의 시작이다(醫家診學之權輿)”, “의학經典의 마음속으로 질병을 구하는 관건이다(醫經之心髓 救疾之樞機)”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²⁷⁾.

3. 兩晉 및 隋唐五代의 진단학

晉唐에 이르러서는 역대 의사들이 대부분 診斷과 治法을 결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한 진단을 전문적인 학과로서 연구를 하였다²⁸⁾.

3.1 脈診

西晉 王叔和의 『脈經』은 漢代 以前の 脈學을 집대성한 것으로 『內經』 『難經』과 張仲景·華佗에게서 관련있는 論술에 자기의 임상경험을 합하여 만들었다. 이전의 복잡했던 脈象의 명칭을 24종으로 정리하였고, 불분명하였던 脈의 形狀을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脈象의 감별에 대하여 중요시하여 이의 비교를 하였다²⁹⁾. 우선 寸口脈法을 확립하였는데, 寸關尺 三部脈位로 나누고 臟腑에 分配하는 原則을 만들었으니, 그 論이 『難經』에 비해 명확하고 寸口脈의 關鍵문제를 해결하여 임상에서 寸口脈法의 보편적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平脈辨證을 중요시하여 脈證·治療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⁰⁾. 이렇듯 脈學을 집대성하였기에 後世에 脈學에 대해서는 모두 이를 기초로 하여 研究하게 되었다.

이러한 『脈經』은 세계의학에 널리 영향을 미쳤으니 일찍이 A.D.562년에 脈學이 朝鮮·日本 등의 나라로 전달되었고 아랍의 의사인 이비켄나(A.D.980-1037)의 『醫典』에 특히 중국 脈學의 내용이 흡수되었다. 17세기에는 『脈經』은 이미 여러 종류의 문자로 번역되어 구라파에 유전되었다³¹⁾.

이외에 唐末에 道士인 杜光庭이 撰한 『玉函經』3권이 있는데 脈理를 論술하였고 「生 死歌訣」을 編하였다. 上·中·下 3편은 脈과 證의 관계와 脈象의 生理·病理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原本은 流失되었고 후세에 流傳되는 板本은 宋代의 崔嘉彦이 古醫書를 인용하고 자기의 견해를 결합한 注釋本과 관계되어 있다³²⁾. 이외에 皇甫謐은 脈에 의지해서 病을 인식하였는데, 人迎氣口의 脈象변화에 근거해서 病의 輕重과 手足 三陰三陽의 변화를 추측하였다³³⁾. 또한 孫思邈

27) 鄧鐵濤. 위의 책, 13.

28) 앞의 책, 13.

洪元植. 위의 책, 108.에 晉唐의 의학발전특징을 임상의학에서의 풍부한 누적을 들면서 診斷방법은 醫方의 創製나 神藥의 발견 등의 방면보다 뚜렷한 발전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量的인 면을 살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이전시대의 脈學을 집대성한 이 당시의 王叔和 『脈經』은 이후 구라파에까지 퍼져 영향을 끼쳤기에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9) 黃世林·孫明異 著. 위의 책, 16-17.

30) 王雲凱 主編. 『中國名醫名著名方』. 1次 인쇄.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361-362.의 내용을 재편집함.

31) 鄧鐵濤. 위의 책, 13.

Pierre Huard, Ming Wong. 허정역. 『東洋醫學史』. 再版,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6: 125-127.을 요약하면 『脈經』이 한국, 일본, 베트남, 이슬람, 파리, 런던 등에까지 전파되어 프로이아의 『의사의 脈診』 등 여러 서적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32)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138.

33) 裘沛然·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1次印刷.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2:

26) 啓業書局. 위의 책, 4.에서 재인용.

도 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 「診候」에서 “深察三部九候而明告之”³⁴⁾라고 하고 三部九候脈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氣血을 진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논술하였다³⁵⁾.

3.2. 望診

『脈經』에는 「扁鵲華佗察色聲要訣」이 있어 望診과 聞診을 서로 융합하는 방법을 논술하여 환자의 精氣神의 盛衰를 관찰하고 병의 輕重緩急을 분석하여 예후를 판단하고 또 사망시기를 예측하였다³⁶⁾. 이는 扁鵲와 華佗의 잃어버린 望診의 자료를 기록하여 그 가치가 있다.

孫思邈은 『千金翼方』 「色脈」에서 “의사는 비록 脈을 살피는데 잘하더라도 氣色을 관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오묘함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夫爲醫者 雖善于脈候而不知察于氣色者 終爲未盡要妙也)”³⁷⁾라고 하여 ‘察于氣色’을 진단방법의 要綱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外臺備要』는 그리고 傷寒, 天行, 溫病 등의 논술에 힘을 썼는데 斑瘡, 豆豌豆瘡(天花)에 대한 논술은 發泡, 起漿, 化膿, 結痂되는 모든 과정을 모두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로 보아서 痘疹에 대한 色澤, 분포로서 판정을 하였으니 결국 診察의 관건을 望診에서 구하였다³⁸⁾.

葛洪의 『肘後備急方』에, 危急한 症狀에 대해 望診중 目診으로 診斷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³⁹⁾.

晉隋시대의 舌診의 특징은 『黃帝內經』과 『傷寒雜病論』의 舌診經驗을 계승하여 정리하고 傳하고 발전시켰다. 이시기의 舌診내용의 주요한 古醫書는 西晉시대에 있다. 王叔和의 『脈經』과 東晉시대 葛洪의 『肘後備急方』과 隋代 巢元方이 撰한 『諸病源候論』 등의 책이 있다⁴⁰⁾. 唐代는 舌診발전의 중요한 시기로서 이때에 舌象變化가 ‘病在臟腑’에 속하는 이론

이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唐代 舌診내용을 포함한 책으로는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이 있다. 王燾의 『外臺秘要』와 華佗로 托名된 孫思邈이 著述한 『青囊秘錄』과 티베트의사인 宇妥·元丹貢布가 撰한 『四部醫典』이 있다⁴¹⁾.

3.3. 기타

巢元方이 A.D.610년에 撰述한 『諸病源候論』은 제일먼저 病源 證候의 진단에 대해 하나의 영역으로서 논술한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67門으로 분류하고, 각종 질병의 證候를 1739論으로 열거⁴²⁾하였고, 진단에서는 四診을 종합하고 증후를 나누어 분석했다는 데 공헌함이 있었다⁴³⁾.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 「大醫精誠」에서 “병이 내부(원인이나 부위)는 같으나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있고, 또한 내부는 다르나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같은 것이 있다(病有內同而外異 亦有內異而外同)”이라고 하고 또 「診候」에 “병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根源(원인)을 살피고 病機를 관찰해야 한다(夫欲理病 先察其源 候其病機)”라고 하여

3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1차인쇄,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35) 裘沛然 主編, 嚴世雲 副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1차인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28.

36) 沈炎南 主編, 『脈經語譯』, 1次印刷,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3: 167.

37) 孫思邈, 『千金翼方』, 1판 8차인쇄,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4: 298.

38) 張樹生, 肖相如 主編, 위의 책, 8.

39) 孫益鑫, 『肘後備急方』急症診治特色與發明, 『安徽中醫學院學報』, 1996: 제15권 제2기: 2를 재편집함.

40) 李乃民 主編, 『中國舌診大典』, 1차인쇄, 北京市: 學苑出版社, 1994: 10.

41) 앞의 책, 13.

42) 張樹生, 肖相如 主編, 위의 책, 7.에서는 病을 綱으로 하고 候를 目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43) 앞의 책, 7.

病을 진단하는데에는 外部現象에 미혹되지 않고 現象으로부터 本質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證候를 자세히 진찰하고 병이 발생한 시기, 陰陽表裏虛實, 五臟積聚를 감안하여 病源과 病機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의 證候를 살피는데에는 色脈과 按診을 중요시 하였다⁴⁴⁾.

葛洪의 『肘後備急方』에서는 또한 ‘熱毒入內’의 黃疸에 대한 檢尿法의 診斷을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⁴⁵⁾.

4. 宋代의 진단학

晉·唐의 의학이 『內經』의 이론적 기초에서 앞으로 임상경험을 쌓은 시기라면 宋代의 의학은 이러한 임상경험의 기초에서 개혁파의 혁신사상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론의 탐구와 발전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⁴⁶⁾.

4.1 脈診

이 시기에는 진단방법에서 脈診이 크게 중시되었으나 高陽生이 지은 『脈訣』이 유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脈經』의 중요한 내용을 요점만 뽑아서 歌訣로 만든 것이다. 또한 24종의 脈象을 七表八裏九道の 3類로 나누었고, 脈象을 表裏 등의 病變과 직접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시할 가치가 있다⁴⁷⁾. 그리고 이는 陳言, 朱肱에게 영향을 미쳤다.

陳言의 『三因極一病症方論』은 察脈辨證을 중요시하여 脈診을 專門의인 篇을 만들어 論述하였는데, 모든 병의 證候를 24脈과 연관시키고 五臟六經의 本脈을 알아야만 비로서 病脈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脈을 논한 特徵은 人迎氣口로서 內外因을 구별하고 表裏九道로 열거해서 모든 病을 診斷한 것이다. 人迎은 六經外感을 살피고 氣口는 七情內傷을 살피고 人迎氣口에 相應하지 못하는 것은 不內外因이 損傷한 것이다. 또 이른바 表裏九道라는 것은 24종의 脈象을 七表病脈, 八裏病脈, 九道病脈 등 3가지로 나

는 것이다. 그리고 대략 浮沈遲數을 24脈을 총괄하는 綱紀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⁴⁸⁾.

朱肱은 傷寒을 치료하는데 表裏陰陽辨證을 중시하면서 이 辨證과정중에서 脈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脈이 傷寒의 表裏虛實을 분별하는 관건이라고 하였다⁴⁹⁾. 또 腎의 盛衰는 太谿脈, 沖陽脈으로는 胃氣의 有無를 관찰한다고 하였다⁵⁰⁾.

許叔微의 辨證方法은 脈과 證이 서로 참작되고 內外가 자세하게 관찰되어야 비로소 明確한 辨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許氏는 脈象에 대해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診脈에서 寸口뿐만 아니라 또한 三部九候에 대해서도 중시하여 趺陽太谿 2脈이 임상에서 後天脾胃, 先天腎氣를 진찰하는데 명확히 할 수 있어 중요하게 여겼다⁵¹⁾.

비교적 유명한 脈學의 專門 서적은 崔嘉彦(字가 希範, 號는 紫虛, 南康사람)의 『崔氏脈訣』(1189, 또한 『崔眞人脈訣』, 『紫虛脈訣』이라고 한다)이다. 그는 『崔氏脈訣』에서 “浮沈遲數은 으뜸이고 風氣冷熱은 病을 주관한다(以浮沈遲數爲宗 風氣冷熱主病)”, “특히 삼부를 살펴야 한다(更看三部)”, “특히 오장을 살펴야 한다(更看五臟)”라고 강조하여 脈象·三部를 臟腑와 결합해서 脈證規律을 闡述하여 脈學을 精練하였다. 이 책에서는 歌訣체 재로하여 암송하기 쉽게하여 후세사람들이 중시하였다. 明代 李聞予가 補訂하여 『四言舉要』라고 개칭하였고, 실용적이어서 『東垣醫書』에서는 으뜸으로 취하였으며 李時珍의 『瀕湖脈學』중에 附入하여 후세에 깊은 영향

45) 孫益鑫, 위의 글, 2.

46) 洪元植, 위의 책, 140.을 재판집함.

47) 앞의 책, 143.을 편집함.

48)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0.; 鄧鐵濤, 위의 책, 14.

49) 裘沛然 主編, 嚴世雲 副主編, 위의 책, 47-48.

50) 鄧鐵濤, 위의 책, 14.

51) 裘沛然·丁光迪 主編, 위의 책, 43.

44) 鄧鐵濤, 위의 책, 14.

을 미쳤다. 崔嘉彦의 제자인 劉開(字 立之, 號 復眞)는 후에 『劉氏脈訣』(1241)을 저술하였는데, 七表八裏脈法을 浮沈遲數 4가지 종류로 총괄하고 寸·關·尺의 三部主病으로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하였다⁵²⁾.

楊士瀛은 1261년에 『醫學眞經』을 저술하였는데, 「自序」에 “우선 脈을 관찰하는 總論이 되고 다음은 脈訣, 다음은 七表脈, 다음은 八裏脈, 다음은 九道脈을 論하였다(首爲察脈總論 次論脈訣 次論七表脈 次論八裏脈 次論九道脈)”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비록 僞本人 『王叔和脈訣』을 경으로 삼았으나 各家의 論說를 흡수하여 조잡한 것을 정밀하게 하였다⁵³⁾.

宋 淳祐년간에 施發(字 政卿, 號 桂堂, 浙江 永嘉사람)은 『內經』, 『難經』, 『甲乙經』 등에서 관련있는 脈學의 내용을 기초로 『察病指南』(1241)을 撰하였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上卷은 脈法을 總括적으로 논하고, 卷中에서는 24脈의 形象과 主病을 논하였고, 卷下에서는 傷寒에서 雜病에 이르기까지 21종의 病證의 生死脈法, 婦人病脈·胎脈과 小兒諸病의 脈法 등을 論술하였다. 또 ‘七表八裏九道’를 따라 24脈의 分類法을 使用하였으며, 특히 脈搏跳動의 그림 33종을 만들어 그림으로 脈을 표시하여 새로운 면을 개척하였다⁵⁴⁾.

위의 脈學 서적이외에도 『蘇沈良方』중에는 沈括과 蘇軾의 脈學에 대한 論述이 있고, 『鷄峰普濟方』에는 脈·形·氣의 順逆, 四時의 正常的인 脈象과 病脈, 肥·瘦·虛·實 체질의 脈象, 脈象의 形氣가 서로 得하고 反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朱宏의 『南陽活人書』에서는 素問診候之法이 있다. 張杲의 『醫說』에는 龐安常脈法이 있고 『邵氏聞見錄』에는 魚游蝦戲의 脈이 있다⁵⁵⁾.

그리고 劉昉의 『幼幼新書』중에는 指紋의 診斷法을 기록한 사람으로 楊大業 등 8인이

있었다고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⁵⁶⁾.

4.2. 望診

施發의 『察病指南』은 脈學이외에 권하에 「察五臟色知生死訣」이 있어 望診으로 死症을 확인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⁵⁷⁾.

錢乙은 小兒科 診斷에 대해 望診을 중요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眼神의 變化를 관찰하여 小兒 臟腑精氣의 盛衰와 精神意識의 好惡을 예측하였고, 顔面의 非正常的인 色은 다른 臟腑와 성질이 다른 疾病을 나누어 반영하고, 形體의 強弱과 五臟精氣盛衰가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體態의 動靜자세로서 小兒病證의 陰陽속성을 결정하였다⁵⁸⁾.

望診의 발전 또한 있었으니 法醫學의 출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宋代에는 만연했던 推行嚴歷한 刑法으로 해서 法醫學을 발전을 촉진되어 더욱 내용이 풍부한 法醫學의 著書들이 나오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저자를 알지 못하는 『內恕錄』, 南宋 鄭克的 『折獄龜鑑』, 桂萬榮의 『裳陰比事』와 『檢驗格目』, 『檢驗正背人形圖』 등이 있는데, 모두 望診을 法醫學에 응용한 것으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나타난 것중에서 宋慈가 1247년에 撰한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으뜸의 法醫學 專門書籍인 『洗冤集錄』이 있다⁵⁹⁾. 여

53) 앞의 책, 230.

54) 鄧鐵濤. 위의 책, 14.; 앞의 책, 230.

이러한 脈象 그림은 또한 許叔微의 『仲景三十六種脈法』에서도 시도되었다. 또한 이러한 脈形을 그린 것은 귀중한 科學的 探索인 것이다. 600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사람인 E.U.Marey가 1860년에 脈搏표시장치를 만들어 비로소 측정기구로서 脈波의 形態를 표시하려는 꿈을 실현하였다.

55) 앞의 책, 231.

56) 洪元植. 위의 책, 143.

57) 施發. 『察病指南』卷下. 裘慶元 輯. 『秘本醫學叢書』卷5. 1次印刷. 上海: 上海書店. 1988: 25.

58) 譚德福. 「試析錢乙兒科望診」. 『浙江中醫雜誌』1996: 4월호: 182.에서 발췌.

59) 張樹生, 肖相如 主編. 위의 책, 9.

52)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0.; 鄧鐵濤. 위의 책, 14.

기에 기술된 검시는 거의 넓은 의미의 望診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舌診에 대한 연구는 먼저 『傷寒論』의 舌診 내용에 대해 整理를 하였다. 朱肱의 『南陽活人書』는 일찍이 口燥舌乾의 有無로서 三陽合病과 少陰病을 감별하였으니 口燥舌乾而渴은 少陰熱化를 確證하는 것이라는 등등의 많은 요령이 있다. 또 錢乙은 『顯齒經』의 辨舌경험을 계승발전시켰는데 小兒의 咬舌弄舌舒舌 등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논술하였고 脾熱弄舌, 時時舒舌, 大病이 낫지 않은데 弄舌은 凶하다는 등이 있다. 陳自明은 婦人科와 外科에서 舌診에 대한 내용을 정밀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舌下의 脈이 黑色이다가 青色이 되고 오히려 舌下가 冷하면 임신부와 태아의 예후가 불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舌을 살피서 瘡瘍의 吉凶을 판단하였다(60).

또 陳言은 『三因極一病症方論』에서 舌診이론에 대해 총결하였는데, 그는 舌質·舌苔의 變異는 六淫·七情을 막론하고 모든 것은 心·肝·脾 3經에서 病理變化가 발생하는 것과 유관하다고 생각하였다(61).

4.3. 기타

朱肱은 “대개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부를 관찰하는 것이요, 脈을 잡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부를 관찰하는 것이다(大抵問而知之 以觀其外 切而知之 以察其內)”라고하여 問診으로 症狀를 관찰하고 脈으로 內部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62).

施發의 『察病指南』은 脈學이외에 卷下에 「聽聲驗病訣」, 「攷味知病法」 등의 편이 있어서 聞診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63).

陳言은 先代의 것과 本人의 味覺을 診察한 辨證經驗을 총결하였는데 후세의 ‘攷味知病’이라는 것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는 臨證·考察하는데 舌覺의 變化가 苦·淡·鹹·酸·澀·恬 6가지가 있다고하여 舌覺診察의 내용을 풍부

하게 하였다. 味覺의 변화는 臟氣의 偏盛과 相關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6종의 味覺變化의 病因病理를 總結하였다(64).

5. 金·元시대의 진단학

宋代의 이론에 치우친 연구는 金·元시대에 와서는 印象을 통한 기본이론의 탐구로 바뀌었는데, 특히 病理學說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의학에서 學派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65).

5.1 脈診

元代의 戴起宗이 撰한 『脈訣刊誤集解』는 『內經』, 『難經』, 張仲景, 華佗, 王叔和와 역대 관련있는 論述들로서 六朝의 高陽生이 著述한 『脈訣』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脈은 陰陽으로 분류할 수 있고 七表·八裏·九道의 脈의 분류방법은 『內經』, 『難經』, 張仲景, 王叔和의 논지와는 다르다고 비판하였고, 또 印象에 운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分·合·偶·比·類 5字의 脈學의 연구방법을 새로이 만들었다(66).

또 滑壽의 『診家樞要』(1359)는 崔嘉彦의 脈書를 增刪하여 완성한 것으로 崔嘉彦과 다른 것은 浮·沈·遲·數·滑·澀 6개의 脈을 綱으로 삼은 것이다. 우선 脈象의 큰 요점과 辨脈法을 論하였는데 독특한 견해가 있고, 계속해서 浮·沈·遲·數 등 30종의 脈象과 主病을 闡述하여 『脈經』에서 열거한 脈象에 비교해서 長·短·大·小·牢·疾 등 6종의 脈을 增補하였고 또한 專門的으로 婦人과 小兒脈法을 論述하

61) 앞의 책, 231-232.

62) 裘沛然 主編, 嚴世雲 副主編. 위의 책, 48.

63) 施發. 위의 책, 25.

64)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1-232.에서는 舌診으로 분류하였으나 여기서는 聞診의 범위로하여 기타에서 기술하였다.

65) 洪元植. 위의 책, 192-193.

66) 黃世林·孫明異 著. 위의 책, 19-20.

60)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1.

였다⁶⁷⁾. 또한 滑壽는 唐 王超의 『仙人水鏡圖訣』에 대해 『靈樞』의 魚際의 絡脈을 診斷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발전시킨 3세이하의 小兒의 指紋診察이라고 제시하여 또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⁶⁸⁾.

危亦林的 『世醫得效方』에서는 危重한 疾病의 釜沸·魚翔·彈石·解索·屋漏·蝦游·雀啄·偃刀·轉豆·麻促 등의 十怪脈을 논하였다⁶⁹⁾. 朱丹溪는 『脈訣指掌病式圖說』 1卷을 저술하여 그림 형식으로 論說과 합하였고 高陽生의 『脈訣』을 반박하였다. 또 『脈因證治』에서는 먼저 脈을 論하고 후에 治療을 定하였는데 비교적 條理가 있다⁷⁰⁾.

5.2. 望診

劉河間的 『河間六書』에는 四時五臟의 色으로서 五臟의 榮枯를 觀察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李東垣은 色脈을 관찰하여 吉凶을 定한다고 論述하였고, 『丹溪心法』에는 五色이 五臟이 應하고 不應하는 것으로 疾病의 生死順逆을 판단한다는 것이 있다. 『格致餘論』에서는 病을 觀察하는데 마땅히 먼저 形色을 관찰하여 그 情을 안 延후에 察脈問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람의 形色이 다르므로 大략 脈만 논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形色을 察하여 脈을 論하는 견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다⁷¹⁾.

5.3. 舌診

舌診에 대한 연구를 보면 成戊己는 『傷寒明理論』에서 『傷寒論』의 舌診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總結하여 「舌上胎」라는 제목을 달고 專門인 論述을 하였는데 가장 오래된 舌診의 論著이다. 글중에 우선 正常인 舌象을 제시하고 항상 나타나는 病理인 舌象과 形成된 原理, 進退變化의 機轉을 논술하고 후에 仲景이 擧여져 설명한 舌診에 대해 歸納·分析하였다. 그리고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보충하였다. 元代의 倪維德은 『元機啓微』에서 口乾과 舌胎의 有無로서 眼病을 別하여 陰虛와 陽虛로 나누었으니, 眼科辨證에 대해 중요함을 설명한 것이다⁷²⁾.

元代의 杜本(字는 原父, 다른 字는 伯原, 清江사람이다)은 1341년에 『敖氏驗舌法』에 근거해서 『敖氏傷寒金鏡錄』을 撰하였는데 이는 舌診이 이미 專門인 診察방법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敖氏驗舌法』이 있었는데 이는 專門的으로 舌色으로써 病을 察하였고 그림, 論述, 處方이 있었다. 그러나 다만 12종류의 舌法만이 있었다. 杜本은 12개의 舌法이 부족할까 添되어 36종의 驗舌法을 만들었다. 『金鏡錄』에서는 專門的으로 辨舌하여 病을 察하였고 察舌辨證과 用藥의 칙을 立하여 舌診이 完備한 계를 가진 斷方法으로 만들었다. 이 책의 36종의 그림중에 24개의 그림은 舌苔를 專門的으로 論하였고, 4개의 그림은 舌質을 論하고 8개의 그림은 舌苔와 舌質을 兼해서 論하였다. 그림중에 기록된 舌色에는 淡·紅·青 3가지가 있고, 舌面變化를 論한 것은 紅刺·紅星·裂紋 등이 있고 苔色에는 白·黃·灰·黑 4가지가 있고 苔質에는 乾·滑·澀·刺·偏·全·膈·瓣 등이 있으며, 주요한 病理인 舌象에 대해 모두 論述하였다. 각 그림의 아래에 글자로 설명하였는데 脈象을 合해서 주요한 證候의 病因·病機, 治法과 豫後 등을 闡述하였다. 이 책은 舌診의 기초로 上되며 學術的, 實用的 가치가 있다. 후세에 申斗垣의 『觀舌心法』과 張誕先의 修訂한 등등은 杜氏의 『敖氏傷寒金鏡錄』의 藍本이 되었다⁷³⁾.

5.4. 기타

68) 鄧鐵濤. 위의 책, 15.

69) 앞의 책, 14-15.

70)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1.

71) 앞의 책, 232.

72) 앞의 책, 231.

73) 앞의 책, 232.

67)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1.

金·元 4大家의 저명한 劉河間·李東垣·朱丹溪·張從正은 진단에 대한 논술에서도 여력을 남기지 않았다⁷⁴⁾.

東垣은 內傷·外感의 疑惑된 것을 자세히 변별하고 辨脈에서는 四診을 합하여 참작하는 것을 중시하여 그는 “脈을 잡는 방법은 虛靜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神을 깨끗이 하고 근심을 고요히 하며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安寧케하여 精明을 보고 五色을 살피고 音聲을 듣고 고통을 물은 다음에 비로서 寸尺을 만져서 浮沈을 변별하고 이를 서로 참작해야 生死의 나눔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환자를 살피는 것은 신체의 크고 작고 살찌고 마르며,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감정의 緩急이 예가 모두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형체와 氣가 서로 맞는 이는 살고 서로가 맞지 않는 이는 病이 된다(持脈有道 虛靜爲保 但可澄神靜慮 調息寧心 視精明 察五色 聲音聲問所苦 方始按寸尺 別浮沈 以此參伍 決死生之分矣. 復觀患者身形長短肥瘦 老少男女 性情緩急 例各不同. 故曰 形氣相得者生 參伍不調者病)”이라고 하였다⁷⁵⁾.

朱丹溪는 병을 진단하는데 外로부터 內를 알수 있다고 주장하여 『丹溪心法』에서 “그 내부를 알고자 하는 이는 외부를 살펴야 하고 외부를 진찰하고자 하는 이는 내부를 알아야 한다. 대개 모든 내부에 있는 것은 모두 외부로 나타나니 서로 參酌하지 않고 病邪의 順逆을 판단한다면 맞지 않게 된다(欲知其內者 當以觀乎外 診于外者 斯以知其內. 盖有諸內者形諸外 苟不以相參 而斷其病邪之順逆 不可得也)”라고 하였다⁷⁶⁾.

기타 진단 방법으로 聽聲, 辨口鼻, 問寒熱 등의 診斷내용과 같은 것은 金·元 시대에 모두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졌다. 『丹溪心法』에는 특히 평소 起居飲食을 묻는 내용이 있다. 이는 후세에 四診이론의 발전에 대해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⁷⁷⁾.

74) 鄧鐵濤. 위의 책, 15.

6. 明代의 診斷學

명시기에는 진단중에 脈診과 舌診의 발전이 두드러졌고 동시에 診病 辨證의 원리에 대해서도 특히 더욱 闡明됨이 있었다.

6.1 脈診

張介賓의 『景岳全書』 「脈神章」에 『內經』 『難經』 仲景과 모든 의사들의 脈義를 상세하게 논술하고 脈神·正脈·16部·脈의 常變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였다⁷⁸⁾.

朱東隆의 『四海同春』(1597)에서는 脈에 의지한 ‘臟腑診(診)治’와 24脈의 相類別 辨別을 중시하였다⁷⁹⁾.

明代 脈學의 저작물은 대단히 많은데 李時珍이 1564년에 撰한 『瀕湖脈學』은 이 시기에 중요한 脈學의 專門 書籍이다. 작자가 그 책의 앞에 서술한 것에 근거해 보면 宋代의 高陽生の 『脈訣』에는 오류가 있고 李時珍의 아버지 李言聞의 『四診發明』은 어려워서 李時珍은 『脈經』에 記載된 것에 근거하여 先人들의 脈學과 有關한 논술을 總結하고 자기의 경험을 결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두 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27脈의 脈象을 논술하였고 뒷부분은 李言聞이 崔嘉彦의 『四言脈訣』을 刪補하여 만든 『四言舉要』⁸⁰⁾와 관련을 두어 비교적 전체적으로 脈

75) 앞의 책, 15.

76) 앞의 책, 15.;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231.

77)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앞의 책, 232-233.

78) 鄧鐵濤. 위의 책, 15.

79) 앞의 책, 15.

上海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所 古籍研究室.

「別具一格的脈書」-『新刊四海東春』提要-

『上海中醫藥雜誌』1983: 1월: 38-39.에

① 24脈의 복잡함을 간결하게하여 6脈(浮·沈·遲·數·虛·實)을 診脈의 綱要로 삼았다. ② 腹背募腧穴 診法을 널리 사용하였다. ③ 脈診의 5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察其虛實大略. 診其有無偏勝. 詳其是否相生. 候其病之京中. 知其病程遠近)이라고 『四海東春』의 脈學요점을 말하였다.

學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각종 脈象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先人의 기록을 引用하고 다시 體狀詩·相類詩·主病詩나 혹은 體狀相類詩라는 항목을 두어 각종 脈象의 特徵, 鑑別과 主病을 나누어 서술하였다⁸¹⁾.

또 1584년에 吳崑이 지은 『脈語』는 明代의 유명한 脈學의 專門書籍이다. 이 책은 「下學」과 「上達」 2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부분은 「取脈入式」·「寸關尺義」·「六部所主」·「五臟浮沈」·「取脈有權」·「五臟經脈」·「五臟病脈」·「五臟死脈」·「諸脈狀主病」·「怪脈類」·「婦人脈法」·「小兒脈法」·「諸病宜忌脈」 등 13항목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후자는 「脈位法天論」·「大小腸脈在兩寸間」·「三焦脈在右尺辨」·「寸口脈之大會」·「脈有神機」·「三部九候」·「七診」·「六殘」 등 51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논술이 풍부하고 條理가 있다⁸²⁾. 梁學孟의 『國醫宗旨』에서는 按脈用藥을 주장하고 脈學의 임상적 가치를 드러내었다⁸³⁾.

李中梓의 『診家正眼』은 『內經』, 『難經』에 근거하여 각권마다 앞에 先聖들의 根源을 논하였고 후의 賢人들의 學說을 논하여 王叔和, 李東垣, 李時珍 등 모든 의사들의 학설을 인용하였으며, 그 뒤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혔다. 논술은 天人合一, 因地因人診脈을 중시하고 平脈·病脈에 귀중한 것은 神이 있음이라고 하고, 危重할 때에는 先後天 根本의 有無를 더욱 중시하였고, 모든 질병의 피해할 脈을 논술하였다. 下卷에는 28맥 모두를 四言歌訣 형식으로 논하였는데 먼저 體象, 主病, 兼病을 열거하고 다시 해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⁸⁴⁾.

6.2. 望診

많은 커다란 類書 全書, 經典注釋연구와

四診研究의 專門的인 책이 나왔는데, 望診은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 발전하였다. 明代 張三錫의 『醫學六要』의 하나인 『四診法』은 비록 脈診에 편중되어 있으나 비교적 자세하게 五官·辨舌과 기타의 望診 내용을 論하고 있다. 李仲梓는 약 1642년에 『診家正眼』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비록 脈學理論을 중점적으로 논술하였으나 또한 望診學도 함께 설명하였다⁸⁵⁾.

6.3. 舌診

일찍이 1445년에 陶華의 『傷寒點點金書』가 있었는데 舌診을 專門的으로 논술하였으며, 明 嘉靖시대에는 특히 抄本에 그림을 붙히게 되었다. 16C 末葉에 申斗垣(拱辰)은 臨床觀察을 하고 당시의 舌診을 集大成하여 『傷寒觀舌心法』을 지었는데, 137舌을 기재하고 그 形態를 그림으로 하고, 條를 나누어 상세히 分析하고 내용은 자못 풍부하고 議論이 비교적 정밀하였다⁸⁶⁾.

張介賓의 『景岳全書』와 같은 것에 곧 「舌色辨」 등의 篇이 있어 紅舌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舌色變化의 다른 성질을 闡述하였다. 그는 우선 다음으로 '舌神'을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으니 "마땅히 根本을 관찰해야 한다. …… 만일 色이 계속적으로 어둡고 神氣가 없다면 그 根源이 이미 敗한 것이다(當察其根本 …… 如果色連地而灰黯無神此其本原已敗)"라고 하였다⁸⁷⁾.

明代에는 溫病學派와 學說의 形成으로 해서 溫病學派 사람들이 '傷寒辨脈'·'溫病察舌'이라고 주장하였기에 溫病學派는 舌診에 대해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溫病察舌'은 우

80)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67.

四言歌訣 형식으로 脈象의 機轉, 診脈法, 五臟平脈, 辨脈提綱, 각종 病脈의 體狀, 脈象主病, 常見病證의 主脈, 婦人脈法, 奇經八脈診法과 모든 眞藏脈을 서술하였다.

81)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313.

82) 앞의 책, 314.

83) 鄧鐵濤. 위의 책, 15.

84)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68-369.

85)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10.

86) 앞의 책, 11.

87) 앞의 책, 12.

선 吳又可가 제창하였는데 後에 각 학자들이 점차 체계를 세워 완전하게 하였다. 吳氏는 이름이 有性이고, 江蘇省 震澤사람으로, 1642년에 『溫疫論』을 저술하여, 舌診을 운용하는 것이 溫病診斷에 중요하다고 하였다⁸⁸⁾.

6.4. 기타

脈學과 舌診이 발달한 동시에 四診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또한 전문적인 저서도 적지 않다. 明 張三錫의 『醫學六要』의 하나인 『四診法』은 내용이 비록 切脈에 편중되어 있으나 비교적 자세하게 五官·色脈·聲診·問病·辨舌 등의 진찰 방법을 논술하고 있다.

『醫宗金鑑』 「四診心法要訣」은 4言歌訣로서 간략하게 四診의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고 암송하기 편리하게 하였다⁸⁹⁾.

李中梓의 『診家正眼』은 脈學에 대해 조예가 깊었으나 이에 치우치지 않고 그는 望·聞·問·切 四診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여 “옛 선배들은 일찍이 望·聞·問·切 四診 4가지를 서로 참고하지 않고 病情을 관찰하지 않았다(古之神聖未嘗不以望聞問切四者互相參考 審察病情)”이라고 하였다⁹⁰⁾.

7. 清代의 진단학

7.1 脈診

1662년에 완성된 『脈訣匯辨』은 淸初 의사인 李延崐가 編纂한 것이다. 그는 六朝때의 『脈訣』의 “鄙俚紕謬 取資捧腹”하고 또 간략한 것에 비추어서 그는 脈을 연구하는데는 6가지 요점⁹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10년동안 70종에 달하는 古醫書들에서 脈學과 관련한 논술을 참고하고 整理하여 책을 만들었다. 책중에는 李中梓의 醫案 수십례가 기록되어 있다⁹²⁾.

1650년에 潘楫이 王紹隆이 傳한 것에 근거하여 輯注編撰한 『醫燈續焰』은 21권, 81편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脈學에 대한 논

술이 제법 풍부한데 脈으로서 證에, 證에서 處方에 도달하는 論述體系를 취하였다⁹³⁾.

이외에도 淸代 의사들은 앞선 선배들의 경험을 기초로하여 脈學의 生理·病理를 연구하고 證候를 결합하여 脈學의 근원을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淸 鶴升平의 『脈要圖注詳解』에는 脈學의 叢論·各種의 脈法·運氣·28脈·奇經八脈·骨度·經脈·絡脈·經別·經筋과 身形·臟腑·營衛·顏色·五音·五行 등의 診法을 포괄하면서 자료를 널리 구하였고 그림을 삽입하였다⁹⁴⁾.

또한 周學霆의 『三指禪』에서는 脈을 논하면서 緩脈을 權衡으로 삼아 모든 脈의 기준으로 하고 浮·沈·遲·數은 4大綱脈으로 삼아 모두 27脈을 열거하고 대비법을 사용하여 각종의 다른 脈象을 감별하였다⁹⁵⁾. 그는 寸·關·尺 六部の 脈을 좌측에서는 心·肝·腎을, 우측에서는 肺·脾·命門을 살핀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脈診을 病因·病機·病症과 處方用藥과 결합하여 脈學理論을 임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⁶⁾.

沈金鰲는 脈理의 논술에 대해 특히 자세히 하였는데 『脈象統類』 1卷과 『諸脈主病時』 1卷을 저술하였다. 脈理를 논술하면서 대단히 많이 取하였다⁹⁷⁾.

이외에 淸 周學海的 『重訂診家直訣』은 『周氏醫學叢書脈學四種』중의 하나로서 이 책은

89) 鄧鐵濤, 위의 책, 16.

90)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69.

91) 앞의 책, 370.에 相類의 脈의 解釋, 相反하는 脈의 대비, 兼하는 脈의 숙달, 正常脈의 관찰, 때에 따른 脈 변화의 확인, 眞絶脈의 인식을 6가지 요점이라고 하였다.

92)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314.

93) 앞의 책, 314.

94) 鄧鐵濤, 위의 책, 15-16.

95) 앞의 책, 15-16.

96) 王順利, 「『三指禪』脈學思想簡析」, 『安徽中醫學院學報』 1996: 제15권 제2기: 8.을 재편집함.

97) 鄧鐵濤, 위의 책, 15-16.

88) 앞의 책, 12.

『脈義簡摩』, 『脈簡補義』의精華를 뽑아서 脈象指法과 主病을 종합적으로 논술하고 아울러 對比하는 방식으로 24종맥의 脈象을 闡述하고 또한 位數形勢微甚兼獨의 8자로서 正脈 變脈을 분석하는 綱領으로 하였고 내용은 대단히 緊要한 것이었다⁹⁸⁾.

羅浩輯의 『診家索隱』이 있는데 崔紫虛 余抑庵 張石頑 3家の 學說을 모아서 기록하고 아울러 李士材가 論한 28맥을 살피고 張石頑의 增附한 脈을 더하였으며, 또한 宋 劉立之의 浮沈遲數을 大綱으로 삼고 弦短長 3部를 附한 것에 근거하였다. 모든 맥의 脈象考辨 主病과 參辨 등의 방면에 대하여 논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⁹⁹⁾.

예를 들어 管玉衡의 『診脈三十二辨』은 脈診의 32變중에서 診脈의 大法을 논술하면서 浮沈遲數滑澀의 6맥이 모든 29맥의 陰陽所屬과 그 形象 등을 통괄한다는 것은 독특한 견해가 있는 것이다¹⁰⁰⁾.

柯詒伯의 脈診에 대한 공헌을 보면 仲景脈法을 중시하였고 促結代脈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는 3가지 脈이 다르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脈과 證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는 眞이고 다른 하나는 假이니 舍脈從證, 棄假求真하여 病機를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¹⁾.

7.2. 望診

이 시기의 望診은 특히 提示된 것중에 하나는 中醫學界 제일의 望診 專門書籍인 『望診遵經』이 1875년에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汪宏, 字는 廣庵, 清代 新安사람이다. 그는 『內經』 『難經』 『傷寒』 『金匱』와 기타 前賢 이들의 著述에서 많은 望診에 대한 관련된 資料를 수집하고 자기가 경험에서 얻은 것을 結合하였는데, 經典의 의의를 존중하여 整理·分析·比較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望診의 專門書籍이다. 이 책은 上下 2卷으로 나누었다. 上卷은 望診의 總體的인

論述을 하여, 望診의 原理·方法·內容·注意事項과 基本原則의 運用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下卷은 望診에서 구별하여 各論으로 하였다. 이 책은 견해를 넓혔고, 條理가 밝고, 글이 유창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이는 光緒以前의 望診學說을 總結한 것으로서 望診學의 발전에 공헌함이 있는 책이다¹⁰²⁾.

7.3. 舌診

清代로 오면서 中國舌診의 발전은 이미 中醫 四診에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각 의사들이 널리 계승하고 清代 이전의 舌診경험을 運用하여 많은 舌診의 전문서적을 撰하였으니, 申斗垣의 『傷寒觀舌心法』, 張登의 『傷寒舌鑒』, 徐大椿의 『舌鑒總論』, 王文選의 『傷寒舌鑒』, 梁玉瑜의 『舌鑒辨證』, 劉恒瑞의 『察舌辨證新法』 등이 있다. 많은 舌診의 전문서적이 아닌 책들 -예를 들어 『石室秘錄』, 『馮氏錦囊秘錄』, 『溫熱論』, 『傷寒第一書』, 『傷寒指掌』, 『傷寒論本旨』, 『望診尊經』, 『形色外診簡摩』 등이 있다¹⁰³⁾.

清代 康熙7년에 江蘇省 吳縣사람인 張登은 字가 誕先으로 어려서 아버지인 張璐(石頑)으로부터 계승하여 『傷寒舌鑑』을 著述하고 겸하여 『傷寒緒論』 「辨舌」(張璐 著)의 理論을 섭렵하고 申氏의 『觀舌心法』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120개의 그림을 넣고, 白·黃·黑·灰·霉·醬 등 5가지 舌色과 紅·紫·藍 등의 3가지 舌色을 나누었다¹⁰⁴⁾. 이 책은 傷寒舌象을 위주로 하였고 舌를 관찰하여 辨證하고 아울러 처방 50개를 연결하였다¹⁰⁵⁾. 乾隆년 사이에 徐靈胎의

99) 앞의 책, 15-16.

100) 앞의 책, 15-16.

101) 李惠義. 「柯詒伯對中醫診斷學的貢獻」. 『浙江中醫雜誌』 1996: 5월호: 220.에서 발췌.

102)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11.

103) 李乃民 主編. 위의 책, 84.

104)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11-12.

105)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71.

98) 앞의 책, 15-16.

『舌鑑總論』(或 다른 사람이 僞托이라고도 함)은 곧 張氏의 『舌鑑』으로부터 만든 것이다. 同治年에는 江蘇省의 太倉사람인 傅松元(字 耐寒)이 저술한 『傅氏三書』중에 『舌苔統志』가 있는데, 舌로서 外感을 辨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雜病을 辨別하였고 또한 처음으로 苔色과 舌色을 구별하였다. 光緒年에는 劉以仁이 編한 『活人心法』은 杜本과 張登과 段正誼의 『瘟疫論』중에 있는 관련된 舌 그림을 모으고 아울러 王文選의 『舌鑑』을 記載하여 모두 149舌로 하였으니 淸以前的 舌診學의 총모음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廣東의 茂名사람인 梁玉瑜(字 特岩)이 6대로 전해온 舌診으로 病을 治療했던 經驗에 근거하여 『舌鑑辨正』 한권을 編輯하였고 또한 그림 149개를 記載하고, 옛날의 誤謬에 대해 叱正을 하였다. 아울러 '刮舌驗苔', '分經辨證'의 觀點을 제시하였다(106).

江蘇省 蘇州사람인 葉桂는 字가 天士로, 또한 널리 스승을 좇고 이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유명한 『溫熱論』을 撰述하였는데, 전체 36條중 舌診을 論한 것이 17條고 또한 3번 '驗之于舌'을 제시하였다. 그 『臨證指南醫案』중에는 또한 대부분 舌診의 論述이 있다. 葉氏 著書의 특징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舌診의 方法, 內容과 意義를 論述한 것이다. 安徽省의 桐城사람인 余霖은 字가 師愚로서, 1794년에 『疫疹一得』을 著述하였고, 江蘇省 吳縣사람인 薛雪은 字가 生白으로, 『醫經原旨』, 『濕熱論』을 著述하고, 陳平伯은 『外感溫病篇』을 著述하는 등 모두 溫病察舌理論을 풍부하고 충실하게 하였다. 특히 감히 칭찬할 만한 것은 江蘇省 淮陽사람인 吳瑭으로, 字는 鞠通인데, 溫病에 대해 많은 研究가 있다. 1798년에 『溫病條辨』을 撰述하여 葉天士의 舌로서 衛氣營血을 辨別하는 理論을 결합하여 舌診으로 三焦를 나누는 觀點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古書에서 대부분 '舌胎'라고 하였는데, 吳氏는 '舌苔'라고 고쳤으니 아울러 지

금까지 의사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107).

1687년 陳士鐸의 저서 『石室秘錄』에 「傷寒辨舌秘法」이 있고, 胡玉海의 『傷寒一書』에는 「傷寒舌苔辨」이 있고, 張石頑이 1695년에 著述한 『傷寒緒論』에 「辨舌」이 있고, 陶華가 1719년에 著述한 『陶氏傷寒完書』에는 「臨證舌辨」이 附錄되어 있고, 石芾南의 『醫原』(1861)에는 「雜病舌苔辨證篇」과 「溫熱辨舌心法」이 있고, 吳坤安의 1796년에 著述한 『傷寒指掌』에는 「察舌辨證歌」가 있고, 江筆花가 1824년에 著述한 『醫鏡』 등은 모두 다른 정도로 舌診學에 대해 闡釋하고 있다. 이러한 時期에 舌診에 대한 論說은 많았다. 예를 들면 1701년 王景韓의 『舌鏡』, 楊雲峰과 劉恒瑞가 1754-1898년에 著述한 『臨證驗舌心法』과 『察舌辨證新法』이 있고, 王蘇門이 1789년에 저술한 『傷寒辨舌秘錄』이 있고, 1830년에 葉氏가 撰한 『傷寒玉液辨舌色法』이 있고, 1840년 辛延鎰이 著述한 『三十六舌歌』와, 1877년의 何愚 등이 編纂한 『舌圖辨證』, 1890년에 周鏡湖가 지은 『傷寒舌』 등과 같은 것은, 모두 舌에 대해 專門的으로 論述한 것들이다. 이외에도 舌診學의 專門書籍이 적지 않으나 作者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1751년의 『舌辨要略』, 1866년의 『舌鑑新書』, 1877년에 『(眞傳)傷寒舌苔圖論』, 1896년에 『舌診』 등은 모두 舌診學의 발전과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귀중한 공헌을 하였다(108).

7.4. 기타

淸代의 四診의 成就로는 淸 何夢瑤의 『四診語』(곧 『樂上堂人子須知音語』 卷1이다) 우선 12經脈歌를 들고 다음으로 四診心法의 핵심에 대해 陰陽證을 辨別하는데 脈診望色·察面·五官·脣·齒·辨舌·聞聲과 問診 등으로 辨別하여 논술하고 아울러 8脈의 요점, 小兒諸診歌와 奇經八脈圖歌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내

107) 앞의 책, 12.

108) 앞의 책, 12-13.

106) 張樹生·肖相如 主編. 위의 책, 11-12.

용은 대부분 韻語로서 注를 다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淸 林之翰의 『四診抉微』는 『內經』의 色脈을 중시하여 이를 근거로 삼고 古今에 四診과 유관한 衞術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 四診은 같이 중요한 것으로 또한 서로 상관성이 있어 이미 切脈에 치우치지 않았고 또한 望·問·聞의 3診을 무시하지 않았다. 望診은 神氣·形色·顔面·五官·苗竅·齒·項·爪·甲 등의 形色變化 등을 자세히 衞術하고 小兒指紋의 특수한 관찰 방법을 附記하였다. 問診중에서는 聲音을 듣고 盛衰存亡을 조사하고 또한 情志의 感覺을 徵驗하였다. 問診은 病機를 관찰하는 關鍵으로 삼았다. 診脈部分은 脈理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진단과 결합하여 治법을 소개하였다. 이 책중에 張介賓의 『景岳全書』 「傳忠錄」중의 「十問篇」을 대단히 칭찬하고 그 중심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綱領을 파악하여 다른 것을 해결하고 體와 用을 포괄하는 妙法이 있다. 諸家の 脈訣에서 『瀕湖脈學』을 諸家の 으뜸이 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외에 李梴의 『醫學入門』의 診病六十問, 陳修園의 『醫學實在易』 「四診易知」와 같은 것은 四診을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하여 後學들에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었다. 또한 汪宏의 『望診遵經』은 역대에 望診과 유관한 자료를 모아서 氣色과 疾病變化의 관계를 설명하고 여러 部位의 形容色澤과 汗·血·便·溺 등의 稀稠有無로서 비교 분석하여 病症의 表裏虛實寒熱陰陽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 順逆安危를 예측하니 그 내용은 정밀하고 실용적이어서 臨床에서 참고할만 하다(109).

『脈訣匯辨』은 비록 脈學을 위주로 衞術하였으나 四診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시하여 卷7에 비교적 전체적이고 자세하게 望·面·目·鼻·毛·髮·形體各部·聽言語·聞呼吸·問起居·嗜欲苦樂과 또한 辨舌을 전문적으로 衞術하였다. 李氏는 病을 진단하는데 脈診만을 오로

지 하지 않고 望·聞·問·切 四診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0).

『醫燈續焰』에는 補遺가 있는데 各種病症의 療法, 望診, 聞診, 問診, 聲診, 辨舌, 醫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病의 규칙이 있다(111).

柯韻伯은 問診에 대하여 “진단하는 이에게 問診이 없어서는 안된다(診家不可無問法)”이라고 하여 이를 診斷의 요령으로 삼았으며, 望·聞·切 3가지와 결합해서 辨證施治를 하여야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112).

喻昌의 『醫門法律』에서는 권1에 望·聞·問·切 四診의 방법에 대해 衞術하였으니, 「明望色之法」, 「明聞聲」, 「辨息之法」, 「明胸中大氣之法」, 「明問病切脈之法」, 「明合色脈之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13).

III. 結 論

戰國시대부터는 이전의 경험에 의지하던 단계를 벗어나 四診에 대한 일정한 이론적인 근거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秦·漢시대에는 經典이라고 하는 『內經』, 『難經』, 『傷寒論』 등이 나타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四診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이때에는 脈診과 望診의 결합한 방법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晉에서 唐代까지는 診斷과 治法을 결합해서 연구를 하였다. 『脈經』의 출현은 診斷을 專門의 인 학과로서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脈診이나 다른 診斷方法, 또는 四診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들이 나오게 된다. 宋代에는 脈診과 望診에 대해 특히 중요시 하였다. 診斷學의 專門書籍인 『察病指南』이 나왔으며, 또 望診을 응용한 法醫學이 발달하였다. 金·元시대에는 舌診의 專門의 서적인

110) 王雲凱 主編. 위의 책, 370.

111) 甄志亞主編, 傅維康 副主編. 위의 책, 314.

112) 李惠義. 위의 글, 219-220.에서 발췌.

113) 王雲凱 主編. 위의 책, 550.

109) 鄧鐵濤. 위의 책, 16-17.

『敖氏傷寒金鏡錄』의 출현으로 舌診은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明代에는 脈診과 舌診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清代에 특기할 만한 것은 望診의 專門書籍인 『望診遵經』이고 溫病學의 발전으로 舌診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많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따라 脈診이나 望診, 혹은 舌診이 더욱 중시되었으나 결국 望·聞·問·切四診을 결합하여 진단하였다.

參 考 文 獻

A. 단행본

1. 洪元植, 『中國醫學史』, 1次印刷,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2.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中國醫學史』, 1次印刷,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周世榮 編著, 『馬王堆養生氣功』, 1차인쇄, 湖北省: 湖北科學奇術出版社, 1990.
4. 鄧鐵濤 主編, 『中醫診斷學』, 1판 6차인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5. 周一謀 等著, 『馬王堆醫學文化』, 1차인쇄, 上海市: 文匯出版社, 1994.
6.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초판 1쇄, 新華: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1.
7.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1차인쇄, 常熟市: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8. Pierre Huard, Ming Wong, 허정역, 『東洋醫學史』, 재판,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6.
9. 裘沛然·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1차인쇄,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2.
10. 黃世林·孫明異 著, 『中醫脈象研究』, 1판 2차인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11. 啓業書局, 『聞診』, 台北: 啓業書局有限公司, 1986.
12. 王雲凱 主編, 『中國名醫名著名方』, 1차인쇄, 石家莊市: 河北科學技術出版社,

- 1993.
13. 李乃民 主編, 『中國舌診大典』, 1차인쇄, 北京市: 學苑出版社, 1994.
1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1차인쇄,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82.
15. 裘沛然 主編, 嚴世雲 副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1차인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6. 沈炎南 主編, 『脈經語譯』, 1차인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7. 孫思邈, 『千金翼方』, 1판 8차인쇄,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1994.
18. 施發, 『察病指南』 卷下, 裘慶元 輯, 『秘本醫學叢書』 卷5, 1차인쇄, 上海: 上海書店, 1988.

B. 논문

1. 孫益鑫, 『肘後備急方』急症診治特色與發明, 『安徽中醫學院學報』 1996: 제15권 제2기.
2. 譚德福, 「試析錢乙兒科望診」, 『浙江中醫雜誌』 1996: 4월호.
3. 王順利, 「『三指禪』脈學思想簡析」, 『安徽中醫學院學報』 1996: 제15권 제2기.
4. 李惠義, 「柯韻伯對中醫診斷學的貢獻」, 『浙江中醫雜誌』 1996: 5월호.
5. 朱廣仁, 「『內經』舌診芻議」, 『新中醫』 1990: 제1기
6. 上海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所 古籍研究室, 「別具一格的脈書」-『新刊四海東春』提要一, 『上海中醫藥雜誌』 1983: 1월